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재영솔루텍(049630)

IT부품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재영솔루텍(049630)

금형기술을 기반으로 한 IT 부품 제조 전문기업

기업정보(2021/09/30 기준)

대표자	김학권, 김승재
설립일자	1976년 9월 1일
상장일자	2003년 1월 24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주요제품	카메라 모듈 부품, 플라스틱 사출 금형, 유통 및 산업 물류 부품 등

시세정보(2021/10/18 기준)

현재가(원)	1,21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976
발행주식수(주)	78,255,630
52주 최고가(원)	1,570
52주 최저가(원)	676
외국인지분율	3.39%
주요주주	재영아이텍(주) 8.45% 김학권 1.94% 김승재 1.78% 외

■ 스마트폰 카메라 AF 모듈 사업을 주력으로 안정적인 매출 시현 중

재영솔루텍(주)는 1976년 9월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업한 후 1984년 12월 법인전환 하였고, 2003년 1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2021년 반기 말 기준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관계회사로는 재영VINA(베트남), JYCO(일본), 재영솔루텍 개성(북한)이 있으며,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금형제작을 시작으로 반도체 Test 소켓, 휴대 전화 케이스, 전장용 렌즈, 자동초점(AF, Auto Focus) 액츄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 자회사 재영VINA(베트남)에 지속적인 시설 투자 진행

재영솔루텍(주)는 2021년 9월에 AF 모듈 사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를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생산법인인 자회사 재영VINA에 15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하였다. 이는 주요 고객사(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가 전망되어 재고 확보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출시 예정인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 마켓컬리 보냉박스 금형 기술 공급 예정, 매출 다각화

재영솔루텍(주)는 금형 기술의 매출 다각화를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물류 시장으로 시각을 돌렸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인 마켓컬리와 종합 물류기업이 개발 중인 보냉박스의 금형제작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워터인젝션 기술을 활용하여 포장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 중인 보냉박스는 현재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에서 사용 중인 일회용 종이, 스티로폼 박스 보다 보냉력이 우수하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재영솔루텍(주)는 이러한 워터인젝션 공법의 금형 및 제품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형 제작과 박스 양산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관련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1,286	8.01	31	2.42	21	1.65	8.01	1.38	280.19	46	590	22.16	1.72
2019	1,292	0.51	105	8.11	60	4.62	12.79	3.67	195.22	84	744	12.77	1.44
2020	918	-29.01	-16	-1.74	-72	-7.80	-13.89	-4.29	258.29	-95	624	N/A	1.78

기업경쟁력

금형기술 기반 IT부품 제조 전문기업

- 설계, 가공, 조립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 제공
- 초소형 렌즈 금형부터 자동차, 가전까지 제작 가능

최신 기술 선점과 점유율 확대

- 세계일류상품 기반의 기술력(금형, AF 액츄에이터)
- 특허권 49건, 디자인권 2건, 상표권 30건 보유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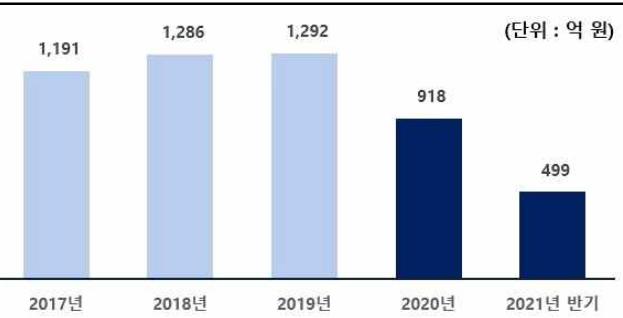
핵심기술

- 설계역량 및 공정역량 확보로 핵심부품 자체 생산
- 비구면 유리렌즈 등 광학계 제조 기술
- AF 액츄에이터 제조 기술

적용제품

- 나노광학부(AF사업부) : VCM, Encoder, OIS
- 금형사업부 : 플라스틱 사출금형(가전, 자동차부품 등)
유통·산업 물류 부품 등

매출실적



시장현황

주요 고객사



최근 변동사항

자회사 재영VINA 지속적인 투자 진행

- 2020년 생산 CAPA 확대를 위해 재영VINA 증설 완료
- 플래그십용 AF 모듈 설비 투자, 61억 원 금전 대여
- OIS 액츄에이터 생산라인 증설, 150억 원 투자 진행

마켓컬리 보냉박스 금형 공급 예정

-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 마켓컬리 & 종합 물류기업 개발 중인 보냉박스 금형 및 개발 제작 진행 중
- 워터인젝션 기술 접목시켜 관련 매출 증대 기대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SG	Issue	Action
ENVIRONMEN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제품 및 공정 개선 - 원부자재(열가소/열경화성 수지 등)의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 ESG 경영 세계적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ISO 14001), 에너지 절약 및 모니터링 강화로 친환경 생산과 소비에 기여 - 일부 원부자재의 안전성, 친환경성 검토 - ESG 동향조사, 도입시기, 조직구성 등 검토 필요
SOCI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특성상 높은 신뢰성과 품질안정성 요구 - 조직문화,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관계 - 기술보호, 유출 및 정보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9001(품질관리시스템), TS16949 등 인증 보유 -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소재부품전문기업 지정 - 일과 삶의 균형 도모(사내복지시설 운영, 경조금 지원,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 휴양시설 지원 등)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내부고발 - 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채널 다양성 확보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투명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확대를 위한 홈페이지 지속 업데이트 -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활동 적극적인 공개 - 연구 자율성 보장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체계 확립으로 산업 성장과 혁신에 기여

한국기업데이터(주)의 ESG 평가항목 기반 자체 데이터, 언론자료 및 제출자료 등을 통해 Issue와 Action을 구성하고 이를 SDGs와 연계

I. 기업현황

IT 융합 금형기술의 뿌리기업, 재영솔루텍

동사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금형 제작을 시작으로 유통·산업 물류 부품인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카메라용 AF 액츄에이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등 VCM, Encoder, OIS 등 IT 융합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재영솔루텍(주)(이하 ‘동사’)은 1976년 9월 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개인기업 ‘재영금형정공’으로 개업한 후 1984년 12월 법인전환 하였고, 2000년 5월에 현 상호로 변경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3년 1월에 상장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으로 2021년 반기 말 기준 9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사의 본점 및 R&D 연구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18(송도동)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 공단, 충남 아산시에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관계회사로는 재영VINA(베트남), JYCO(일본), 재영솔루텍 개성(북한)이 있으며, 주력사업으로는 크게 나노광학부(AF사업부)와 금형사업부로 나눠볼 수 있다. AF사업부에서는 카메라모듈 부품을 설계부터 양산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금형사업부에서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금형 제작을 시작으로 유통·산업 물류 부품인 플라스틱 제품을 디자인부터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용 AF 액츄에이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며, VCM(Voice Coil Motor), Encoder, OIS(Optical Image Stabilization) 등 기술을 보유한 액츄에이터 전문 제조 기업이다.

[그림 1] 동사 주력 사업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2021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대표이사 및 주요 주주 현황

동사의 대표이사 김학권(1946년생, 남)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동사의 창업주이며, 재영금형정공사(1976년~1984년, 최종직위: 대표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4년 12월 동사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 김승재(1977년생, 남)는 창업주의 아들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네모파트너즈, 동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재영아이텍(주)(2017년~, 최종직위:대표이사)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 5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동사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 및 수요분석을 통해 주력 사업의 실현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반기보고서(2021년 6월) 기준 최대 주주는 8.45%를 보유한 재영아이텍(주)로, 2000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승재가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다. 동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가 12.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주요 주주 현황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재영아이텍(주)	김승재 대표이사가 79.8% 지분을 보유한 법인	6,211,968	8.45
김학권	본인(창업주)	1,428,066	1.94
김승재	본인(창업주의 자)	1,311,769	1.78
최영순	김학권 대표이사의 처	157,962	0.21
박규섭	미등기 이사	10,137	0.01
계		9,119,902	1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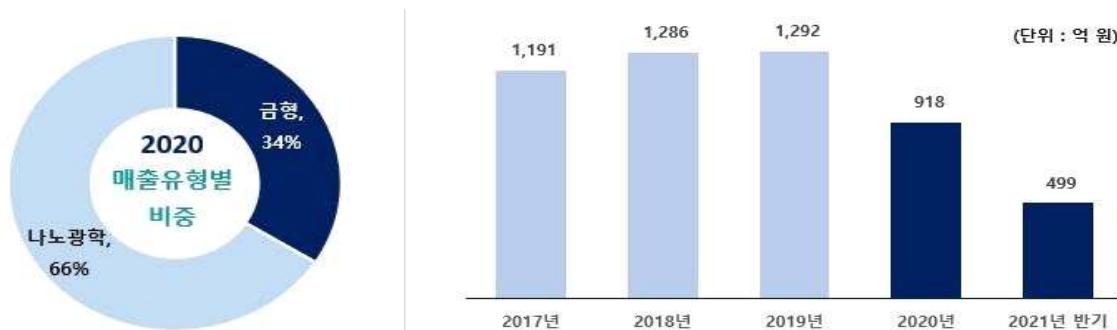
*출처 : 동사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매출 현황

동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금형부문과 나노광학부문(AF사업부)으로 나눠볼 수 있다. 나노광학부문이 2020년 전체 매출액 대비 66%로, 동사는 금형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 모듈 시장의 경우 경쟁 심화로 인해 매 분기 일정 수준의 단가 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최대한 방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및 프리미엄 제품군의 매출 증대, 원가절감 및 수율 개선 등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를 목표로 두고 있다.

동사의 2021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약 49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48%이다. 주요 판매처는 (주)나무가, (주)엠씨넥스, (주)파워로직스, (주)캡시스, (주)한국파렛트풀 등이며, 주요 5대 매출처에 대한 매출 비중은 전체 대비 약 52% 수준이다.

[그림 2]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좌), 연도별 매출현황(우)



*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II. 재무분석

전방시장 수요회복 및 신사업 진출로 실적반등 가시화

동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매출액 감소하였으나,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의 고도화에 따른 Encoder 및 OIS의 수요 확대와 물류센터의 기자재인 팔레트 수주 증가세 등으로 향후 외형 신장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산업의 부진으로 영업실적 감소

동사는 휴대폰 카메라용 렌즈 등 나노광학부품,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부품,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특히,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F 액츄에이터에서 VCM, Encoder, OIS를 생산하여 중저가에서 플래그십까지 AF 액츄에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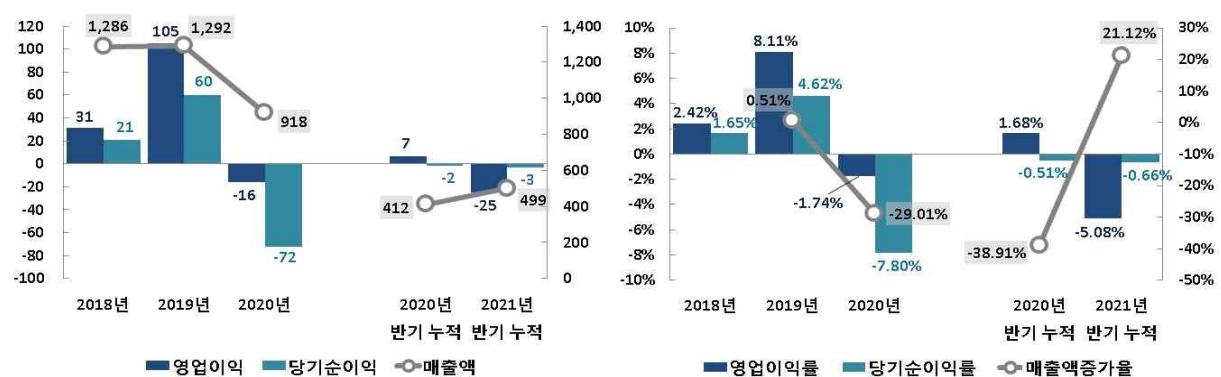
동사의 매출액은 2018년 1,286억 원, 2019년 1,292억 원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2020년에는 9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01% 감소하였다.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2018년 31억 원(2.42%), 2019년 105억 원(8.11%)에서 2020년은 -16억 원 (-1.74%)으로 적자 적환하였다.

2021년 반기 누적 매출액은 4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25억 원(-5.08%)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억 원 감소하였다. 이는 금형 부분의 수출 호조와 함께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AF 액츄에이터의 공급 증가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주요 원재료인 몰드베이스의 원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스펙의 고도화에 따른 Encoder 및 OIS의 수요 확대와 물류센터의 기자재인 팔레트 수주 증가세 등으로 외형 신장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지며, 2021년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에 대한 중저가 스마트폰의 OIS 납품 가능성이 높아 AF 액츄에이터 부문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적자 사업부(금형사업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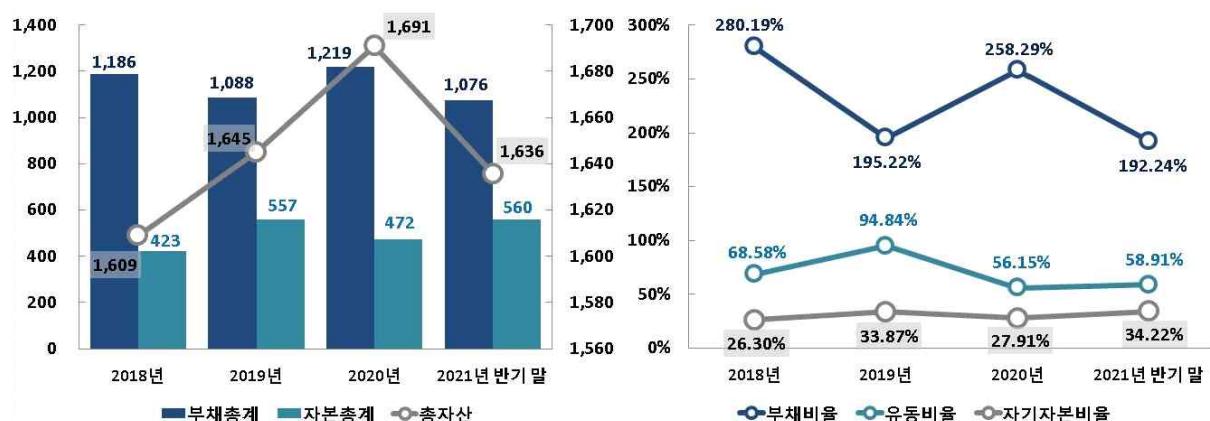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재무구조 개선 중

동사의 총자산은 2019년 1,645억 원, 2020년 1,691억 원, 2021년 반기 말 1,636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2018년 말 280.19%, 2019년 말 195.22%, 2020년 말 258.29%이고 유동비율은 2018년 말 68.58%, 2019년 말 94.84%, 2020년 말 56.15%이다. 2021년 반기 말 부채비율은 192.24%, 유동비율은 58.91%로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2020년 말 대비 개선되었다.

[그림 4]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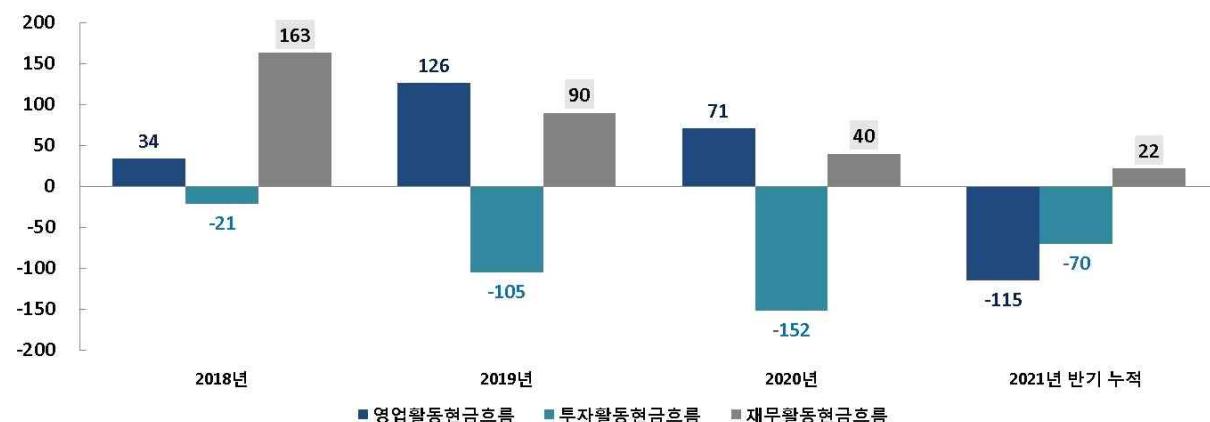
■ 영업활동을 바탕으로 한 현금창출능력 보유

동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2019년, 2020년 연속 현금을 창출하며 정(+)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 베트남 생산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에 따라 동사의 투자활동현금흐름은 2019년, 2020년 연속 부(-)의 흐름을 나타내었으며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장·단기차입금 증가 등으로 2019년, 2020년 연속 정(+)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2021년 반기 누적 현금흐름을 볼 때, 동사는 투자를 위해 전환사채 등 외부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기초 대비 158억 원 감소한 13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5]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III.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한 수익 극대화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동사는 지속적으로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플래그십 모델 탑재용 모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고사양 OIS 생산라인을 증설, 공급량을 늘릴 계획으로 있어 시장 내 지위 향상이 예상된다.

■ 융·복합 산업에 필수인 카메라 모듈 산업

동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카메라 모듈(Camera Module)은 렌즈를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부품으로, 피사체의 빛을 모으는 렌즈 모듈과 광학 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로 변환하는 이미지 센서 그리고 자동 초점 조절이나 손 떨림 방지와 같은 특수 기능 구현을 위한 액추에이터, 이미지 센서를 기판과 연결하는 PCB(인쇄회로기판) 등으로 구성되며,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기기 등에 활용되어 사진과 동영상 촬영, 사물 인식의 용도로 사용된다.

카메라 모듈 시장은 스마트폰의 듀얼 카메라 적용 이후 고화질 및 모듈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의료기기,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등으로 활용 분야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카메라는 듀얼 및 트리플 카메라 채택과 더불어 손 떨림 방지, 고화소 광각·망원 카메라, 홍채 카메라, 3D센싱 카메라 등이 적용되며 제품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차량용 카메라 모듈은 모바일 카메라 모듈 대비 3~10배 가량 고가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및 자율주행 관련 주요 센서를 담당하고 있어 향후 전체 카메라 모듈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카메라 모듈 산업의 특징

특징	내용
성장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마트폰의 고성능 경쟁으로 고화질 카메라 모듈에 대한 교체 수요와 차량용 카메라, 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기 산업임.
전·후방 연관 관계가 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카메라 모듈의 기술 발전으로 고화질의 영상 획득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의 GPU, 메모리 등 관련 부품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로봇 등 전방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임.
가격경쟁이 심한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스마트폰 구성 부품 내 카메라 모듈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모듈 공급가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중국·대만 기업들과의 원가 경쟁이 심한 산업임.
융·복합 산업에 필수적인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초기의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은 순수 카메라 기능을 위한 부품이었지만,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을 기반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의 영역으로 응용이 확대되는 등 융·복합 산업에 필수적인 산업임.
기술집약적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미지 센서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광학 렌즈 설계 및 제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화질 향상을 위한 신호 처리 기술과 노이즈 저감 기술이 제품의 경쟁력이 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임.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카메라 모듈(2021),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또한, 후방산업인 광학계 소재 부품의 경우 일본, 미국 등이 우세하여 국내 기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외의 부품은 국내 업체의 스마트폰 카메라 적용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품 공급사 간 경쟁 및 중국, 대만 기업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경기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고 주요 고객사의 물량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경쟁요소인 특징이 있다.

[표 3] 카메라 모듈 시장분석

구분	내용
촉진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 폰의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이 고 화소화 되고 있고, 화질 개선을 위한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방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의무 장착 등 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과 CCTV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인 변화 또한 카메라 모듈 시장에 우호적임. 증강 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5G 통신망 보급 확대와 IoT 기술 관련 다양한 신규 시장의 등장으로 카메라 모듈 적용 영역이 확대 될 전망임.
저해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광학 소재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이미지 센서의 경우 주요 공급사의 기술 및 시장 영향력이 큼. 핵심 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인수합병으로 주요 메이저 업체 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고 완성 모듈사의 부품 공급사에 대한 단가 하락 압력이 큼.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스마트폰 관련 산업의 발달로 카메라 모듈 기술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으며 모듈 관련 대부분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함.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아 기업 간 원가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대만 기업으로부터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조 및 핵심 부품 분야 신기술 선점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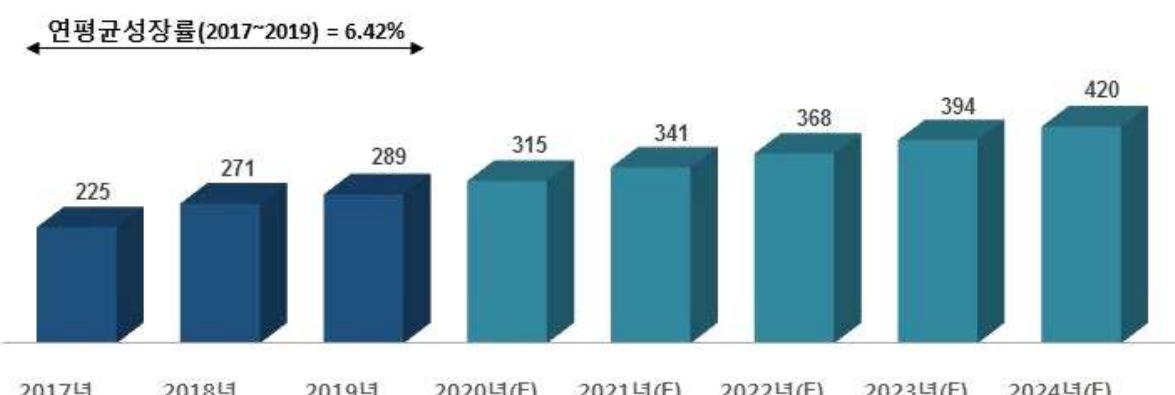
*출처 : 한국신용정보원, 카메라 모듈(2021),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스마트폰 시장이 아닌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을 통한 견조한 성장세 전망

시장조사업체 MarketsandMarkets의 「Camera Modules Market, 2020」에 의하면 전 세계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17년 225억 달러에서 연평균 6.42% 성장하여 2019년 289억 달러 수준이며, 2019년 이후 연평균 7.75% 성장하여 2024년에는 42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카메라 모듈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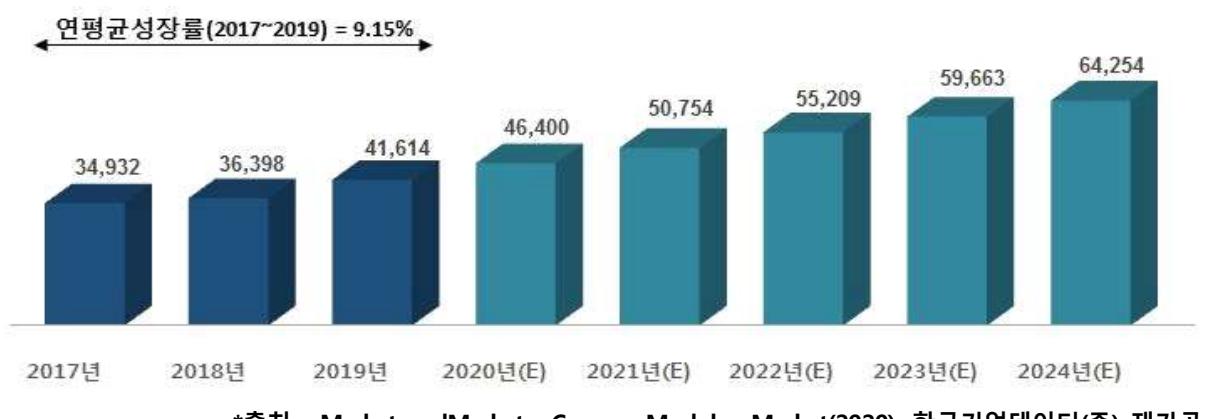
*출처 : MarketsandMarkets, Camera Modules Market(2020),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또한, 세계 카메라 모듈의 수요처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자제품이 78.56%로 가장 높고 자동차 10.20%, 보안 및 감시 6.89%, 산업 2.42%, 항공우주 및 방위 1.04%, 의료 0.88%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아시아태평양 64.80%, 북미 20.50%, 유럽 11.70%, 기타 3.0%로 나타났다.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17년 3조 4,932억 원에서 연평균 9.15% 성장하여 2019년 4조 1,614억 원 수준이며, 2019년 이후 연평균 9.08% 성장하여 2024년에는 6조 4,254억 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을 둔화에 따라 자동차, 생체인식 및 AR/VR 응용 분야 시장의 수요 증가에 맞춰 새로운 분야로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견조한 성장세가 전망된다.

[그림 7]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출처 : MarketsandMarkets, Camera Modules Market(2020),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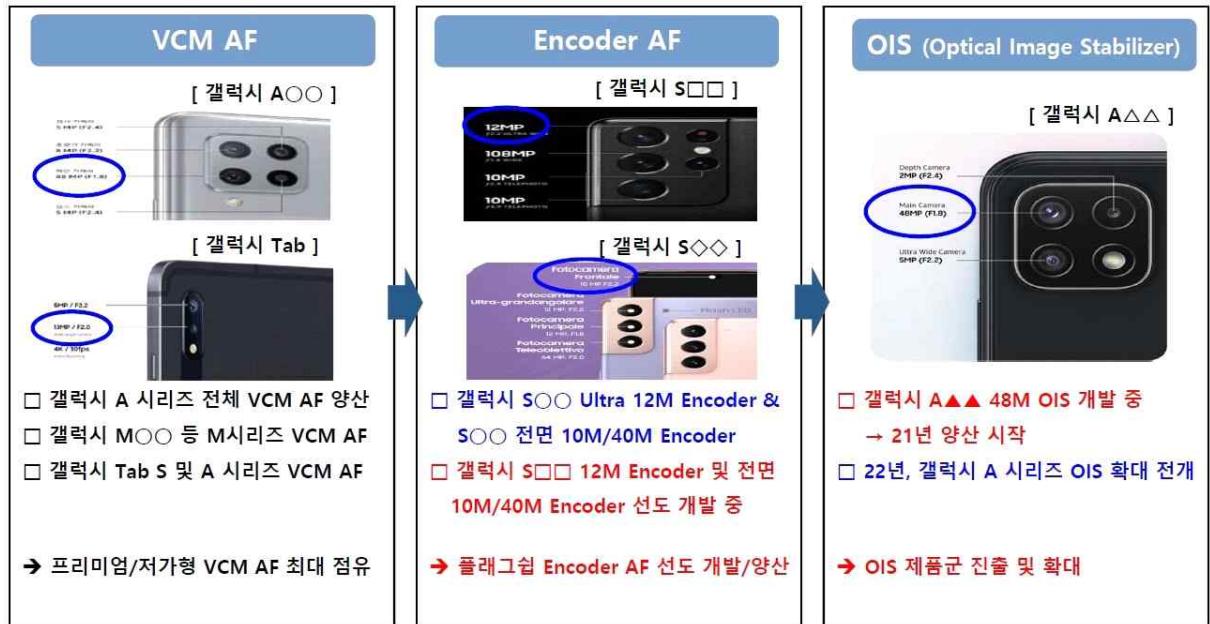
■ 플래그십용 AF 모듈 설비 투자, 자회사에 61억 원 규모 금전대여 결정

동사는 2021년 5월 스마트폰용 AF(Auto Focus)모듈 설비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생산법인인 자회사 재영VINA에 61억원(5백만 달러)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471억 원의 12.9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대여기간 종료일은 2026년 5월 10일까지이다. 이미 2020년에 생산 CAPA 확대를 위해 베트남 생산 기지 재영VINA를 중설했는데, 최근 생산라인 인원이 3,000명에 달할 정도로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예상되면서 주요 고객사(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가 전망되어 재고 확보 측면에서 1차 플래그십 생산라인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카메라 AF모듈은 자동초점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부품으로, 동사는 2013년부터 AF 모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동안에는 주로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용 AF모듈을 납품했다. 그러다가 2020년 처음으로 플래그십 모델용 AF모듈 공급사로 선정되면서, 올해 초에 공개된 갤럭시S21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가격이 비싼 갤럭시S21 울트라에 동사 AF모듈이 탑재되었다. 이는 동사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깊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차기 플래그십 모델용 AF모듈도 공급이 유력하기 때문에 동사는 이번 중설했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는 과거 중저가 스마트폰용 모델시장을 선도했지만 올 초부터 플래그십용 모델 납품도 성공해 모든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플래그십 모델용 중설했을 지속하여 매출과 이익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출 다변화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 동사의 AF모듈 현황 및 전개 방향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2021년 9월)

■ 마켓컬리 보냉박스 금형 기술 공급 예정, 물류 매출 다각화

동사는 최근 금형 기술의 매출 다각화를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물류 시장으로 시각을 돌렸는데, 물류 체계의 구축과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플라스틱 팔레트 및 컨테이너박스 부문에서 일체화 및 경량화를 이루어 높은 경제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림 9] 동사의 유통·산업 물류 제품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2021년 9월)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식재료 판매업체인 마켓컬리와 종합 물류기업이 개발 중인 보냉박스의 금형 제작을 동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마켓컬리가 기존 새벽 배송에서 사용 중인 종이, 스티로폼 박스 대비 보냉 성능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워터인젝션 기술을 활용하여 일회용품 대신에 보냉력을 갖추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워터인젝션 공법은 수압을 이용해 두꺼운 형상을 가진 제품 내에 공간을 만드는 기술로, 원하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 물의 인젝션 속도, 압력, 시간 등의 제어가 필요해 고난이도 금형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가스 인젝션 공법과 비교해 복잡한 부품 없이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두께, 비틀림 등 불량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스인젝션 공법보다 원재료 절감 20%, 냉각효율은 20% 상승, 생산 사이클타임 30%를 단축시킬 수 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부품에 주로 사용되는 워터인젝션 기술을 지속 성장하고 있는 물류시장에 접목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의 양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사는 이러한 워터인젝션 공법의 금형 및 제품 디자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형제작과 박스 양산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향후 관련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최근 식음료, 유통업계가 다회용 배송용기를 사용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동사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OIS 액츄에이터 생산라인 증설을 위한 150억 원 투자

동사는 2021년 9월 기준 양산 중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VCM(Voice Coil Motor), Encoder 탑재의 카메라 모듈과 더불어 신규로 진입하는 고사양 OIS 액츄에이터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9.6%에 해당하며, 투자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이고, OIS 생산시설은 재영VINA가 2020년 증축한 2층 클린룸에 2개 라인으로 증설될 예정이다.

최근 스마트폰에 듀얼부터, 쿼드, 팬타 카메라까지 멀티 카메라 탑재율이 지속 증가하면서 OIS 액츄에이터 탑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올해부터 고객사의 프리미엄급 A시리즈에도 OIS 탑재가 시작되어 시장 전망은 양호하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차세대 갤럭시A 시리즈의 OIS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부터 다양한 A시리즈에 연간 1억 개의 OIS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동사의 액츄에이터가 탑재되는 스마트폰의 종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재영VINA 생산라인 현황

제조공장 : 재영 VINA

초대형 Clean Room 시설 보유로 AF Actuator
제조에 최적화된 환경

구 분	라인운영	생산능력	비고
VCM	24 Line	15,000K/월	1층
ENCODER	6 Line	3,500K/월	2층
OIS	2 Line	1,000K/월	2층(예정)
합 계	32 Line	19,500K/월	



*출처 : 동사 회사소개서(2021년 9월)



■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통한 개성공단 생산기지 재가동 기대

동사의 자회사인 재영솔루텍 개성(주)는 개성공단 1호 입주사로 개성공단에서 스마트폰용 AF 기능을 수행하는 VCM 모듈을 생산했었다. 운영 당시 클린룸을 비롯해 VCM 6개 라인을 가동했으며, 현재의 갤럭시 시리즈 출발인 S1에 여기서 생산된 부품이 탑재되었다.

그러나 2016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동사는 VCM 최대 생산기반을 잃게 되었고, 이후 베트남을 대체 생산기지로 정하여 2018년 안정화에 성공했으나 기회비용이 막대했다. 당시 추산 손실액은 개성공단 자산(227억 원)을 제외하고도 700억 원이 넘으며, 베트남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2018년까지 2년간의 매출 공백이 발생했는데, 약 501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변경하면서 지출한 투자액이 약 222억 원이며, 동사는 관련 피해액을 모두 회계적으로 손실처리 하여 현재는 남북관계가 악화되어도 추가적인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개성공단이 개선 될 경우 동사에는 주요 생산기지를 되찾는 호재가 되는데, 2021년 10월 초 남북통신선이 복원되어 남북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으로 향후 재영솔루텍 개성(주)가 재가동되면 스마트폰 부품사업 핵심 품목인 VCM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 더불어 최근 시장진입에 성공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AF모듈인 Encoder와 OIS 생산기지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개성공단 재개 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1] 재영솔루텍 개성(주) 개요

재영솔루텍 개성 주식회사(개성법인)

주요생산품목	임가공 - 카메라모듈(VCM), 자동차부품조립, 금형부품, 렌즈가공
자본금	USD 760만
설립일자	2005년 10월 7일
회사주소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36-8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최근 주요 연구개발 현황

동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공인된 재영솔루텍(주) 프라스틱응용기술연구소(최초인정일: 1995년 2월)와 JDH연구센터(최초인정일: 2005년 4월)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 금형 및 관련 기술의 축적을 통한 부품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업을 통한 경영 기여를 목적으로 유망 기술의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2.3%로 산업 평균 4.56% 대비 낮은 수준이나, 핵심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사업 보완적 수단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억 원)

과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기
연구개발비용 계	24	29	24	9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1.9%	2.2%	2.8%	2.3%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5]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단위 : 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총계
49	-	2	30	81

*출처 : 특허청,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6] 최근 연간 수행한 정부 연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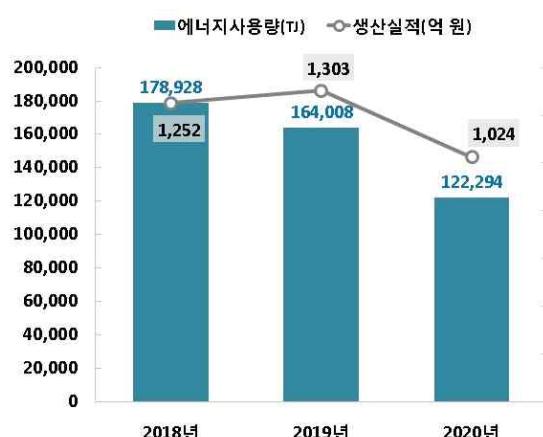
연구과제명	기술 개발 기간	개발단계
두께 3.5mm 이하급 이미지센서-경통 일체형 화상통화용 카메라 모듈의 융합 생산기반 기술 개발	2013.06.01.-2016.05.31	종료
15%이상 경량화가 가능한 리얼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접합 구조 기술을 적용한 Decoration 부품 개발	2016.06.24.-2018.06.23	종료

*출처 : 동사 반기보고서(2021년 6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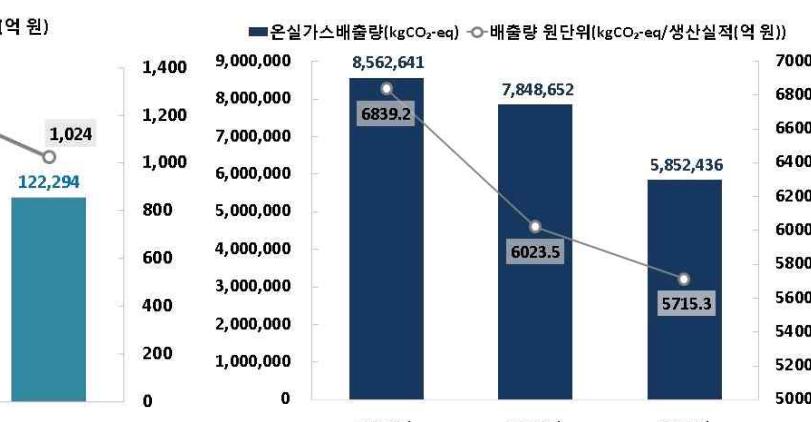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기반 환경영영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해 사용이 제한되는 법정 규제물질과 자발적 제한물질을 엄격하게 관리·검사하고 제품의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2] 연도별 에너지사용량 및 생산실적



[그림 13] 연도별 온실가스배출량 및 원단위



*출처 : 동사,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은 전기가 대부분이며, 동사의 2020년 에너지 사용량은 122,294TJ, 온실가스 배출량은 5,852,436kgCO₂-eq로, 모두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2018년 6,839.2kgCO₂-eq/억 원에서 2020년 5,715.3kgCO₂-eq/억 원로 약 19.66% 가량 감소하여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ISO 9001, TS 16949,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소재부품전문 기업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안전 및 품질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차별금지, 인권존중을 중시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수년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없이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다. 또한, 사내 복지시설 운영(체력단련실, 식당 및 기숙사), 경조금 지원,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임직원 대출 지원, 고등학교/대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휴양시설 지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의 이사회는 2021년 반기 말 기준 등기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1인, 기타 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유지하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준수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배당을 실시한 내역이 없고 정보공개와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는 부족한 수준이나, 상장회사로서의 공시 의무를 준수하며, 소통채널 다양성 확보, 정보접근 등의 권한을 준수하기 홈페이지에 최신 소개자료를 업데이트 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ot Rated	-	2021년 7월 16일
키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AF 액츄에이터 부품의 강자 OIS까지 진출 · 적자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실적 개선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AF 액츄에이터 사업부에서의 고수익성 제품 매출액 증가 2) 플라스틱사업 부문의 공장 자동화용 팔레트 및 새벽배송용 보냉박스 판매량 증가 		